

해남의 맛... '땅끝 제철진미파티' 관광상품 만든다



해남문화재단, 간재미 요리 선봬
막걸리에 버무린 초무침 등 일품
시티투어 연계 '미식 브랜드' 추진
매일 제철음식 선정, 밀키트 구성

“특 쏘는 냄새가 여간 낯선 게 아니죠? 냄새는 이래도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요.”

한 상 가득 차린 2월 해남의 맛이 완성됐다.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는 2월 제철을 맞은 해남 '간재미'가 메인이다. 매화꽃차를 에피타이저로 흥어애국, 간재미 찜, 연근 찰밥 등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맛의 향연'이 펼쳐졌다.

해남군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매일 진행하고 있는 '제철진미파티'가 지난 23일 삼산면 땅끝 해남유스호텔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제철진미파티는 산업관광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해남군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이 함께 한다.

해남문화관광재단 측은 “제철진미파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해남시티투어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해남만의 미식을 브랜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철진미파티에 선보이는 음식들은 모두 해남군민들로 구성된 활동가들이 직접 요리했다. 활동가들을 이끄는 박은하 대표는 이날 직접 간재미회 초무침 시연에 나섰다.

해남의 프리미엄 막걸리로 유명한 '해창막걸리'에 간재미 핏감을 버무려 연육을 했는데 점이 특색이다. 해남에서 난 미나리와 무



해남 '제철진미파티'가 지난 23일 삼산면 땅끝 해남유스호텔 대강당에서 열렸다.

생채 등 각종 채소를 함께 무쳐내면 특 쏘는 초무침이 완성된다.

박은하 대표는 “간재미 핏감을 막걸리에 담가 주무르면 핏물이 빠지면서 특유한 비릿한 향을 없앨 수 있다. 해남만의 특징이다”며 “한달에 한번 그달에 맞는 제철 메뉴를 찾아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해남의 맛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는 활동가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해 작품자 중에서 밀키트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재미뿐만 아니라 봄철 산나물인 연근, 냉이, 파래, 달래, 봄동 등을 활용한 음식들이 곁들여져 봄 내음이 가득한 한 상이었다. 오색으로 물들인 밥을 연근 구멍에 채운 '연근 찰밥'과 해남산 키위와 딸기를 넣은 과일모

찌는 눈길마저 사로잡았다.

해남에서 난 굴과 매생이를 함께 부쳐낸 매생이굴전과 해남의 전통 음식인 쌀을 갈아 죽처럼 끓여낸 굴살국도 일품이다. 특히 간재미와 잘 어울리는 해남산 해장, 삼산, 옥천막걸리는 이날의 특별 메뉴였다.

최석영 해남군 미래공동체과장은 “2월은 간재미를 주제로 해남만의 한 상이 준비됐다. 해남의 향토 세프를 자처한 활동가들이 마련한 귀중한 음식이다”며 “올해는 제철진미파티가 해남에 국한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내를 벗어나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기대 부탁한다”고 말했다.

3월 제철진미파티는 '봄나물'을 주제로 오는 4월6일 서울에서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월 개막

11월7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 '디자인을 만나다' 주제 전시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9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62일간 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Technology관 △Lifestyle관 △Culture관 △Business관, 총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Technology관은 기술과 디자인이 만든 집, 사무실을 엿볼 수 있다. Lifestyle관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이다.

Culture관은 디자인이 예술, 지역문화, 레저 등을 완성한다. Business관은

디자인을 통해 경영, 도시, 산업, 브랜드를 이끄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관찰할 수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나건 홍익대 교수는 최근 행사의 종합계획 등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전시 콘텐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입장권은3월부터 티켓링크, 네이버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는 오는 4월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에 동시 입장 가능한 통합 입장권도 마련했다. 광주시민은입장권 우대할인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비엔날레사무국 (062-611-5040, 5043, 5142)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뮤지컬 '광주' 시즌4, 지역 배우 내달 공개

총 89명 응모... 오늘 최종오디션 5월16~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올해 5월 네 번째 시즌 공연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광주'의 지역 예술인 참여 공모에 총 89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은 3월 초 공개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뮤지컬 '광주' 공연에 앞서 제작사 라이브(주), 극공간소마방진과 함께 지난 3일부터 지역 출신 배우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학 학생인 장삼년 역과 남·여 광주시민 앙상블 등에 총 89명이 지원했다.

제작사 측은 1차 서류전형을 거쳐 지역

배우 45명을 추리고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연습실에서 최종오디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은 3월 초 공개된다.

뮤지컬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극으로 세 번째 시즌 동안 서울과 광주를 비롯해 전국 6개 도시에서 공연됐다. 또 지난해 10월 뮤지컬 본고장 뉴욕 브로드웨이 '787 seventh'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2021년에는 일본TV 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송출되기도 했다.

뮤지컬 '광주'는 매 시즌마다 업그레이드된 서사와 음악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왔으며, 지난 세 번째 시즌 공연에서

는 관객 평점 9.5를 기록했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는 “올해 '광주' 공연을 통해 지역 특화 콘텐츠로서 위상을 선보이겠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뛰어넘는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뮤지컬 광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뮤지컬 '광주'의 네 번째 시즌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라이브(주)와 마방진이 공동 제작한다. 공연은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모두아홉차례 무대에 올려진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062-670-7495)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국악 선율로 느끼는 '새 봄의 정취'

광주국악상설공연 3월 무대 예락·백경우·주소연 등 다채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꽃피는 춘삼월을 맞아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악상설 공연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전통·창작·퓨전 국악 등 광주만의 특색을 담아 국악 공연을 선보이는 광주 대표 브랜드공연이다. 광주시립예술단과 민간예술단체가 함께 공연한다.

3월 첫 공연은 1일 예정돼 있으며 국악단체 '예락'이 '평화의 봄 이야기'를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예락은 이날 '광야의 숨결'과 '지전춤', 창작실내악곡 '향해' 등 6곡을 선보인다. 이어 2일에는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이 '금(琴) 너는 나의 봄'을 주제로 공연하며 가야금 병창, 판소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5일에는 대구 출신 백경우 명무와 광주 출신 주소연 명창이 만나 달빛동맹을

실현하는 기획공연 '단장춘심(斷腸春心)'을 공연한다. 이날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백경우 명무가 춤 '승무'와 '사풍정감'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풍정감'은 사대부 계층의 젊은 선비들의 멋스런 풍류와 의연함을 표현한 춤으로, 유유한 남성적 기품과 내면의 심성을 자유롭게 보여준다. 주소연 명창은 판소리 '심정가 중 주과포해' 대목을 공연한다. 또 24일 시립국악관현악단, 31일 시립창극단이 공연하며 유튜브 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3월 한 달간 민간예술단체 12개 팀이 새로운 레퍼토리의 판소리·사물놀이·단막창극 등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선사한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리며, 모든 좌석은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예매는 티켓링크,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아시아 문화 유물·자료 기증 받아요”

전시·교육·연구사업에 활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전시와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아시아의 유물과 자료를 연중 기증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기증 대상은 아시아문화 관련 문화재적 가치와 연구, 전시의 활용도가 높은 실물자료다.

서남아시아 전통문화(일상생활·종교·명절·음악 등)와 설화, 도시문화(도시광장, 전통시장 등), 민주·인권·평화 관련 자료 등이 주요 대상이다. 기증받은 자료와 유물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 영구 보존돼 기획전시를 비롯한 교육·연구·문화사업 등에 적극 활용된다.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지난 2017년 ACC 내 등록된 전문박물관으로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및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위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를 수집해 왔다.

17~20세기 인도네시아 생활용품과 예술품으로 구성된 누산타라 수집품,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민족의 전통카펫인 알라키이즈(Ala-kiyiz)와 쉬르닥(Shyrdak) 등 아시아문화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기증 희망자는 기증신청서와 유물(자료) 사진 등 관계 서류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조사과 자료관리팀 기증담당자(062-601-4533, yeopo81@korea.kr)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선인 기자**

